

■ 향후 정국 어떻게 되나

친위대 구축… 4대강·개헌 밀어붙이기

국토해양부·환경부장관 유임 의지 확고 인사청문회 기점 여야 금속 냉각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8일 개각 단행은 집권 하반기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친정 체제의 확고한 구축으로 4대강 사업은 물론 개헌 등을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4대강 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의 임용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또 친위 세력인 이재오, 신재민, 진수희, 이주호 등의 입각으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을 차단함은 물론 향후 개헌 정국에서의 체력을 보강했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친위대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강력한 집권 후반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같은 국정 운영의 강력한 드라이브는 야권의 반발을 불러 여야 관계의 급속한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론 정치권 인사들의 대거 입각으로 정치권과의 교감의 폭은 넓어져 소통과 탐색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입각 인사들이 대부분 친위부대적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전위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또 이번 개각을 대권 구도를 인위적으로 변화해보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

를 견제하고 친이계 내에 다양한 후보군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까지 이번 개각을 일제히 강력히 비판한 것도 우려 때문이란 지적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었던 실세차관들이 국정 전면에 포진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국정에 실현시키려는 개각, 국민을 위협하는 무소불위 개각”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박주선 전 최고위원은 “세대교체를 명분 삼아 박근혜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정략적 카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친박계의 한 의원도 “이번 개각은 개헌논의와 후계구도 차원에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는 개헌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번 개각으로 친이계와 친박계가 근본적으로 화해하기 힘든 구도가 됐

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 속에서 아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7·28 재보선 패배 후 빠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다시 찾으려겠다는 각오다.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선 전 최고위원은 “김태호 총리지명자는 박연자회장과 관련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며 “과연 인사청문회의 흑독한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드는 불안한 종지명이다”고 말했다.

김총리 후보자는 박연자 전 태광 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1월 무혐의로 수사는 종결된 바 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총리 후보자는 중앙부처 행정경험이 없고, 경남지사를 했던 분이 내각 전체를 이끌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운영 능력이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증명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30대 서민정책 발표하는 민주

민주당 전병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30대 서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30대 정책은 ▲증산층 및 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자영업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보편적 복지 실현 ▲비정규직을 비롯한 고용안전 문제 등 5개 분야다.

/연합뉴스

“친서민 소통 화합” VS “국민 무시 최악 개각”

여야 개각 반응… 친박 “친정체제 구축”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단행한 ‘8·8 개각’에 대해 여야간은 물론 여권내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우선 한나라당 주류는 이번 개각이 ‘친서민과 소통·화합’이란 국정목표를 구현한 개각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지만 친박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체제 구축’에 주목하며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야권도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부대’ 배치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개각 직후 논평을 통해 “친서민과 소통, 화합”이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구성됐다”고 평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번 개각은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하고 후반기 안

난 아이없는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MB식 오만과 독선 인사의 완성판이자 쇄신개각을 요구했던 국민적 기대를 짓밟은 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총리 지명을 놓고 민주당 전 대변인은 “겸손 인턴 총리 위에 이제 오 특임총리를 둔 것”이라며 “영남 대통령, 영남 국회의장에 이어 영남총리까지 임명한 것이 탕평인사, 지역 균형 인사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총리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경력 부족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재오 특임·신재민 문화체육관광·진수희 보건복지·박재완 고용노동 장관 등에 대해 과상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려운 시기에 중책 맡아 책임 커”

광주출신 이재훈 지경부장관 내정자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은 8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능력도 부족한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더욱 막중한 책임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광주 R&D특구에

개월이 넘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업무를 자세히 파악한 뒤 추진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서 태어난 광주 토박이다.

지금은 이 전 차관의 형제 등 직계 가족들은 모두 서울로 이사해 살고 있으며, 일부 친·인척들만이 아직 광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근혜 대항마 부재속 ‘김태호 카드’ 주목

■ 40대 총리 발탁… 대권구도 변화오나

오세훈·김문수 등도 차기 주자군 포함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신임 총리로 발탁함에 따라 대권구도 변화 등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여야 정파가 저마다 차기의 각축을 본격화한 가운데 4대 도백(道伯) 출신을 내각의 간판으로 선택함으로써 정권재창출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총리 후보자는 경남도의원→거창군수→경남도지사 등 잇단 선출직의 경험을 거쳐 행정능력을 입증한데 이어 이번에 총리로 지명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 잠룡군에 합류하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 비주류 수장인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설만한 친이(친

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랜드 플랜’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여기에 김총리 후보자의 등장은 정치권 전반에서 차세대 주자들을 본격 점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6·2 전당선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광재 강원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당선된 것이나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정두언 최고위원이 선출된 것도 같은 흐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4860(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차세대 주자들의 지도부 입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태호 전 지사의 국무총리 발탁은 여권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의 대권 구도를 뒤 흔들고 있다”며 “여기에 40대 총리의 등장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7·28 재보선 승리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여권이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 분	광주교육대학교(제2기)
개강일시	· 토요일 오후반 2010. 9. 4(토) 14:10
모집기간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9. 4(토)~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 기초반: 30명
수업시간	· 매주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수 강 력	₩ 300,000 *우체국: 503557-01-005018(예금주: 광주교대)
수료후 특 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충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 각 학원별 원서 접수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520-4243 010-9886-8964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조선대학교·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

관상 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성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실패는 인간 반달관계의 결과물이다. 순자·병자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놓고 그자도 모른다”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족시주란? 우주의 천지를 풀어이루어 귀족시주를 나누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꾀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부처진 귀족시주를 동강대학과 어공개합니다.

2010년 2학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과	교과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관상학	9월3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9월3일부터 매주 토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9월3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9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 조선대 등록 - 8월29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2일부터 - 전화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 (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전화 ☎ 062)366-9666, 367-8666

e-mail : hanja-exam@hanmail.net / FAX : 062)366-9779

국방부지정 장교직업보도교육기관/한국산업관련공단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연수목적: 한자·한문의 물버른 교육을 담당할 실력과 자격을 겸비한 유능한 교사 양성

■ 연수대상: 남·녀·노·소·스한자급수, 학력제한없음 18세이상

■ 모집기간: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 수 강 력: 300,000원 농협 175375-56-065137 예금주 : 이종순

■ 모집인원: 각 과정별 25명

■ 접 수 처: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건강관리협회부지)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교육과정: *중임연수원과 동일한 교재로 명강의를 합니다.

■ 과정명: 제 11기 한자지도사 (기초한문)